

자유학기제가 학교 진로교육 및 학생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

장현진(한국직업능력개발원)

I. 서론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학교 수업과 교육과정의 변화를 통해 학생의 진로탐색을 증진하고 꿈과 끼를 찾도록 하는 취지로 우리나라에는 2013년 국정과제 및 정부의 정책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시범학교와 연구학교 등을 거쳐 정책적인 보급·확산 추진력에 의해 2015에는 다수의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참여하였으며, 2016년에 이르러서는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를 운영하게 되었다.

자유학기제의 도입 초기에는 이 제도의 핵심적인 취지가 진로교육의 확대에 있는지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의 변화에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와 혼란도 있어 왔다. 이후 교육부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및 수업의 변화를 통해 공교육 전반의 개선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거시적인 방향을 전면에 내세웠으나, 그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유학기제의 운영 모델 가운데 하나로 진로탐색 유형이 있는가하면 어떤 유형을 선택하거나에 관계없이 궁극적으로 자유학기를 통해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것을 비전으로 하게 됨에 따라 자유학기의 운영에 있어서는 진로탐색 활동의 활성화가 핵심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왔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학기 운영을 위한 국가 수준의 지원 조직은 한국교육개발원 뿐 아니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이 공동 지원 조직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이처럼 자유학기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학교 진로교육 전반이 확대되고 학생의 진로탐색 활동이 활성화되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자유학기에 따른 진로교육적인 측면의 효과에 대하여 주장하거나 다루어왔다. 이지연(2013)은 진로 중심의 자유학기제 도입의 필요성과 그 방향을 제시하였고, 장현진 등(2014)의 연구는 자유학기의 도입이 학생의 진로탐색 증진 관점에서 중요함을 제시하였으나, 자유학기 초기 단계임에 따라 자유학기의 운영을 위한 정책과 제언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 주휘정 외(2017)의 자유학기제 진

로체험 효과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에서는 자유학기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2017년 1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학교를 실험집단으로 하고 2학기에 시행한 학교를 통제집단으로 하여 분석함에 따라 대부분 2학기에 자유학기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어서 주휘정(2017)은 2017년 2학기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참여 및 효과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1학년 학생의 진로성숙, 학습태도 및 학교생활, 행복의 변화를 조사하고 1학기과 2학기 발달 변화 궤적을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최근 다양한 학술논문 차원에서 자유학기제의 진로교육적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이(권일남, 2015; 김해인·최인지·신형진, 2016; 박현진·백성혜, 2015; 어운경, 2015; 장현진, 2018; 현은령·박영숙, 2017 등)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로 인한 진로교육 전반의 변화와 그 성과로서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등 진로설계와 준비 측면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실증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서도 공교육 개선이나 학교 수업 개선 등의 측면을 부각하여 발표하다보니 실제로 학생의 진로탐색 및 진로교육적 효과 측면에서는 제한적으로 다루어온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 진로교육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조사하는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17)’의 중학교(3학년) 학생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유학기제 경험 여부와 그에 따른 학교 진로교육 활동 전반에 대한 참여와 진로설계 및 준비 측면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자유학기 경험이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첫째, 자유학기를 경험한 중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학교 진로교육 참여 및 만족도의 차이가 발생하는가? 둘째, 자유학기를 경험한 중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진로계획 및 진로개발역량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가? 셋째,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대하여 자유학기제 참여 여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이 연구에서 자유학기가 학교 진로교육 활동과 학생의 진로계획 및 준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17)’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초, 중, 고등학교의 진로교육 현황을 진로전담교사, 담임교사, 학교 관리

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매년 조사하는 교육부 통계이다. 전국 단위로 초, 중, 고등학교에 따라 400개교를 표집하여 진로진담교사, 학교 관리자 등을 조사하고, 각 학교에서 1개 학급을 선정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조사한다.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3학년) 9,385명의 응답 데이터를 사용하였는데, 중학생의 경우 모두 3학년 학생을 조사하고 있다(장현진 외, 2017).

이 연구에서 분석한 중학생 응답자에 대한 기초통계 현황은 <표 00>과 같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 49.5%, 여학생 50.5%로 여학생이 약간 많다. 이 학생들 가운데 1~2학년 동안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은 78.2%로 2/3이상의 학생에 해당하였으며, 이는 2015년부터 다수의 중학교에서 자유학기를 도입하였고 2016년부터는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를 도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유학기를 경험한 시기는 1학년 2학기가 7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학년 1학기 8.6% 등의 순이었다. 조사된 학생들을 학교의 설립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국·공립학교 학생이 84.7%로 대부분이었고, 학교 규모에 따라서는 대규모 학교 학생이 50.3%, 중규모 31.6%, 소규모 18.2%의 순이었다. 학교의 소재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 학생이 46.2%, 중소도시 학생이 38.7%이었고, 읍면지역 14.7%, 도서벽지 0.4%의 순이었다.

<표 1> 응답자 기초통계 현황

구분		빈도(명)	비율(%)	비고
성별	남학생	4,644	49.5	
	여학생	4,742	50.5	
자유학기 경험 여부	경험(예)	7,340	78.2	
	1학년 1학기	810	8.6	일부 학생은 2 개 학기 이상 자유학기 경험 한 경우도 있 음
	1학년 2학기	6,916	73.7	
	2학년 1학기	86	0.9	
	2학년 2학기	64	0.7	
	미경험(아니오)	2,046	21.8	
학교 설립 유형	국·공립	7,950	84.7	
	사립	1,436	15.3	
학교 규모	대규모	4,717	50.3	
	중규모	2,962	31.6	
	소규모	1,707	18.2	
학교 소재 지역	대도시	4,335	46.2	
	중소도시	3,632	38.7	
	읍면지역	1,380	14.7	

구분	빈도(명)	비율(%)	비고
도서벽지	39	0.4	
계	9,385	100.0	

2. 변수 구성

이 연구에서 차이분석에 있어서는 자유학기 경험 여부가 집단 구분변수가 되고, 학교 진로활동 참여, 학교 진로체험 유형별 참여, 진로교육 및 학교생활 만족도, 부모와의 대화 수준, 진로계획,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아울러 자유학기 경험 여부의 영향력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는 진로개발역량 전체 평균을 종속 변수로 하고 인구통계변수를 통제변수로 자유학기 경험 여부, 학교 진로활동 참여, 진로교육 및 학교생활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였다. 구체적인 변수에 대한 설명과 코딩은 <표 2>와 같다.

<표 2> 변수 구성 및 설명

변수	변수 설명 및 코딩
자유학기 경험 여부	1학년 1학기 ~ 2학년 2학기 중 1학기 이상 자유학기 경험 여부: 0=미경험, 1=경험
학교 설립 유형	0=사립, 1=국·공립
학교 규모	학년별 평균 학급 수 기준으로 대, 중, 소규모 학교 1=대규모, 2=중규모, 3=소규모
인구통계 변수	교육통계 분류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도서벽지
학교 소재 지역	1=대도시, 2=중소도시, 3=읍면지역, 4=도서벽지 * 회귀분석시 더미변수 변환하여 분석
학생 성별	0=여학생, 1=남학생
학교 진로활동 참여	'진로와 직업' 수업 참여
	교과수업 중 진로탐색 참여
	진로심리검사 참여
	진로상담 참여
	진로체험 참여
진로동아리 참여	0=미참여, 1=참여
학교 진로체험	직업인 특강·멘토링 0=미참여, 1=참여

변수		변수 설명 및 코딩
유형별 참여	현장견학	
	직업실무(모의)체험	
	현장직업체험	
	학과체험	
	진로캠프	
진로교육 및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	1=매우 불만족 ~ 5=매우 만족
	학교생활 만족도	1=매우 불만족 ~ 5=매우 만족
부모와 대화 수준	흥미와 적성 관련 대화 빈도	1=매우 낮음(두 달에 1회 이하), 2=낮음(월 1~2회 정도), 3=보통(주 1회 정도), 4=높음(주 2~3회 정도), 5=매우 높음(매일)
	학교·학과 선택 관련 대화 빈도	
진로 계획	희망직업 유무	1=예(희망직업 있음), 2=아니오(희망직업 없음)
	희망직업에 대한 체험 여부	1=예(희망직업 체험), 2=아니오(희망직업 미체험) * 희망직업 있는 학생 대상 조사
	중학교 졸업 후 진로 계획	1=고등학교 진학, 2=고등학교 미진학, 3=미결정
	진학희망 고등학교 유형	1=일반고, 2=과학고·영재고·외국어고·국제고, 3=예체고, 4=마이스터고, 5=특성화고, 6=자율고 * 고등학교 진학희망 학생 대상 조사
진로개발역량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 측정(20문항, 4영역) - 자기이해와 사회성 - 직업이해 - 진로탐색 - 진로설계와 준비 * 문항별로 1=매우 낮음 ~ 5=매우 높음	

3.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 자유학기 참여 여부에 따른 차이분석을 위해서는 t-분석과 교차분석에 대한 χ^2 검정을 하였다. 아울러 자유학기의 영향력 분석을 위해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전체적인 분석에 있어서 SPSS 24.0 프로그램과 엑셀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학생의 자유학기 경험 여부에 따른 학교 진로교육활동 참여의 차이

가. 학교 진로교육 활동별 참여 여부 차이

중학생의 자유학기 경험 여부에 따른 학교 진로교육 활동별로 참여 여부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자유학기를 경험한 학생이 학교에서의 모든 진로교육 활동에 대하여 참여해봤다(예)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차이검증의 검정량과 각 진로활동에 참여한 학생의 비율 차이를 기준으로 더 큰 차이가 발생하는 진로활동으로는 진로체험, 진로동아리, 교과수업 중 진로탐색(교과연계 진로교육)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자유학기 경험 여부에 따른 학교 진로활동별 참여 여부 차이

학교 진로활동별 참여 여부		자유학기 경험 여부		전체	차이 검증	
		미경험	경험			
「진로와 직업」 수업	예	빈도(명)	1,771	6,810	8,581	$\chi^2 = 79.350^{***}$
		비율(%)	86.6%	92.8%	91.4%	
	아니요	빈도(명)	275	529	804	
		비율(%)	13.4%	7.2%	8.6%	
교과수업 중 진로탐색(교과연계 진로교육)	예	빈도(명)	1,437	6,009	7,446	$\chi^2 = 132.315^{***}$
		비율(%)	70.2%	81.9%	79.3%	
	아니요	빈도(명)	609	1,330	1,939	
		비율(%)	29.8%	18.1%	20.7%	
진로심리검사	예	빈도(명)	1,635	6,370	8,005	$\chi^2 = 61.142^{***}$
		비율(%)	79.9%	86.8%	85.3%	
	아니요	빈도(명)	412	969	1,381	
		비율(%)	20.1%	13.2%	14.7%	
진로체험	예	빈도(명)	1,573	6,595	8,168	$\chi^2 = 239.611^{***}$
		비율(%)	76.8%	89.9%	87.0%	
	아니요	빈도(명)	474	745	1,219	
		비율(%)	23.2%	10.1%	13.0%	
진로상담	예	빈도(명)	1,188	4,751	5,939	$\chi^2 = 30.838^{***}$
		비율(%)	58.0%	64.7%	63.3%	
	아니요	빈도(명)	859	2,589	3,448	
		비율(%)	42.0%	35.3%	36.7%	

학교 진로활동별 참여 여부		자유학기 경험 여부		전체	차이 검증		
		미경험	경험				
진로동아리	예	빈도(명)	616	3,538	4,154	$\chi^2 = 212.910^{***}$	
		비율(%)	30.1%	48.2%			44.3%
	아니요	빈도(명)	1,431	3801			5,232
		비율(%)	69.9%	51.8%			55.7%
전체		빈도(명)	2,046	7,339	9,385		
		비율(%)	100.0%	100.0%	100.0%		

* p<0.05, ** p<0.01, *** p<0.001

나. 학교 진로체험 유형별 참여 여부 차이

중학생의 자유학기 경험 여부에 따른 학교 진로체험 유형별 참여 여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모든 진로체험 유형에 있어서 자유학기를 경험한 학생들의 참여 비율이 미경험 학생들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차이검증의 검정량과 각 진로체험 유형별 참여 학생의 비율 차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현장견학, 직업실무(모의)체험, 현장직업체험, 직업인 특강·멘토링 등에 있어서 자유학기를 경험한 학생들이 미경험 학생들에 비해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자유학기 경험 여부에 따른 학교 진로체험 유형별 참여 여부 차이

학교 진로체험 유형별 참여 여부		자유학기 경험 여부		전체	차이 검증		
		미경험	경험				
직업인 특강·멘토링	예	빈도(명)	1,222	5,688	6,910	$\chi^2 = 260.413^{***}$	
		비율(%)	59.7%	77.5%			73.6%
	아니요	빈도(명)	824	1,651			2,475
		비율(%)	40.3%	22.5%			26.4%
현장견학	예	빈도(명)	1,162	5,694	6,856	$\chi^2 = 350.939^{***}$	
		비율(%)	56.8%	77.6%			73.0%
	아니요	빈도(명)	884	1,646			2,530
		비율(%)	43.2%	22.4%			27.0%
직업실무(모의)체험	예	빈도(명)	642	3,968	4,610	$\chi^2 = 329.356^{***}$	
		비율(%)	31.4%	54.1%			49.1%
	아니요	빈도(명)	1,404	3,372			4,776
		비율(%)	68.6%	45.9%			50.9%
현장직업체험	예	빈도(명)	778	4,358	5,136	$\chi^2 = 294.292^{***}$	
		비율(%)	38.0%	59.4%			54.7%

학교 진로체험 유형별 참여 여부	자유학기 경험 여부		전체	차이 검증		
	미경험	경험				
학과체험	아니요	빈도(명)	1,268	2,982	4,250	$\chi^2 = 200.497***$
		비율(%)	62.0%	40.6%	45.3%	
	예	빈도(명)	528	3,163	3,691	
		비율(%)	25.8%	43.1%	39.3%	
	아니요	빈도(명)	1,518	4,176	5,694	
		비율(%)	74.2%	56.9%	60.7%	
진로캠프	예	빈도(명)	517	2,555	3,072	$\chi^2 = 66.145***$
		비율(%)	25.3%	34.8%	32.7%	
	아니요	빈도(명)	1,529	4,785	6,314	
		비율(%)	74.7%	65.2%	67.3%	
	전체	빈도(명)	2,046	7,339	9,385	
		비율(%)	100.0%	100.0%	100.0%	

* p<0.05, ** p<0.01, *** p<0.001

다. 진로활동 및 학교생활 만족도 차이

자유학기 경험 여부에 따른 진로활동 및 학교생활 만족도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자유학기를 경험한 중학생들의 학교 진로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3.77점으로 미경험 학생 3.71점에 비해 약간 높았고, 학교생활 만족도의 경우에도 자유학기 경험 학생이 4.21점으로 자유학기 미경험 학생 4.14점에 비해 높았다. 모든 값에 있어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였으나, 평균 값 자체의 차이는 0.1점 미만이어 크지 않았다.

<표 5> 자유학기 경험 여부에 따른 학교 진로활동 및 학교생활 만족도 차이

구분	자유학기 경험여부	n	Mean	SD	평균차이 (a-b)	차이 분석(t)
진로활동 만족도	미경험(a)	2,046	3.71	.943	-0.06	t = -2.538*
	경험(b)	7,340	3.77	.980		
학교생활 만족도	미경험(a)	2,046	4.14	.900	-0.07	t = -3.164**
	경험(b)	7,340	4.21	.875		

라. (참고) 부모와 진로관련 대화 빈도 차이

학교 진로교육 활동은 아니지만, 참고 사항으로 자유학기를 통하여 가정에서의 진로교육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자유학기 경험 여부에 따른 부모와

의 진로관련 대화 빈도 차이를 분석하였다(<표 6> 참조). 자유학기를 경험한 중학생은 미경험 학생에 비해 부모와 ‘흥미와 적성 관련 대화’ 빈도가 더 높았고, ‘학교 및 학과 선택 관련 대화’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가 가정에서 부모와 학생 간에 보다 자연스러운 진로 관련 대화가 이루어지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발견할 수 있었다.

<표 6> 자유학기 경험 여부에 따른 부모와 진로관련 대화 빈도 차이

부모와 대화 빈도	자유학기 경험여부	n	Mean	SD	평균차이 (a-b)	차이 분석(t)
흥미와 적성 관련 대화 빈도	미경험(a)	2,046	3.19	1.278	-0.10	t = -3.137**
	경험(b)	7,340	3.29	1.280		
학교·학과 선택 관련 대화 빈도	미경험(a)	2,046	3.11	1.286	-0.11	t = -3.383**
	경험(b)	7,340	3.22	1.286		

* p<0.05, ** p<0.01, *** p<0.001

2. 학생의 자유학기 참여 여부에 따른 진로계획 및 진로개발역량 수준 차이

가. 희망직업 및 진로계획 차이

중학생의 자유학기 경험 여부에 따른 희망직업 여부와 희망직업에 대한 체험 여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학생의 희망직업 유무는 자유학기 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희망직업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희망직업에 대한 체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자유학기를 경험한 학생이 미경험 학생에 비해 희망직업에 대한 체험을 한 학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자유학기를 경험한 학생이 진로체험을 더 많이 참여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표 7> 자유학기 경험 여부에 따른 희망직업 유무 및 희망직업 체험 여부 차이

	구분	자유학기 경험 여부		전체	차이 검증	
		미경험	경험			
희망직업 유무	예	빈도(명)	1,426	5,138	6,564	$\chi^2 = 0.086$
		비율(%)	69.7%	70.0%	69.9%	
	아니요	빈도(명)	621	2,202	2,823	
		비율(%)	30.3%	30.0%	30.1%	
희망직업에 대한 체험 여부	예	빈도(명)	454	1,864	2,318	$\chi^2 = 9.639^*$
		비율(%)	31.8%	36.3%	35.3%	
	아니요	빈도(명)	972	3,274	4,246	
		비율(%)	68.2%	63.7%	64.7%	
	전체	빈도(명)	1,426	5,138	6,564	
		비율(%)	100.0%	100.0%	100.0%	
전체	빈도(명)	2,046	7,339	9,385		
	비율(%)	100.0%	100.0%	100.0%		

* p<0.05, ** p<0.01, *** p<0.001

아울러 자유학기 경험 여부에 따른 중학교 졸업 후 진로계획과 진학희망 고등학교 유형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자유학기를 경험한 중학생이 미경험 학생에 비하여 고등학교 진학 계획인 학생 비율이 더 높고, 진로 미결정 학생 비율은 더 줄어들어 바람직한 모습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다. 고등학교 진학을 계획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학희망 고등학교 유형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에서는 자유학기를 경험한 학생이 미경험 학생에 비해 일반고 희망 비율, 마이스터고 희망 비율은 높았으나, 자율고 희망 비율, 과학고·외고 등 희망 비율, 특성화고 희망 비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차이가 자유학기 경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8> 자유학기 경험 여부에 따른 졸업 후 진로계획의 차이

졸업 후 진로계획	자유학기 경험 여부		전체	차이 검증		
	미경험	경험				
졸업 후 진로계획	고교 진학	빈도(명)	1,866	6,789	8,655	$\chi^2 = 5.253$
		비율(%)	91.2%	92.5%	92.2%	
	고교 미진학	빈도(명)	10	45	55	
		비율(%)	0.5%	0.6%	0.6%	
	미결정	빈도(명)	170	505	675	
		비율(%)	8.3%	6.9%	7.2%	
진학희망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빈도(명)	1,198	4,631	5,829	$\chi^2 = 24.345$ ***
		비율(%)	64.2%	68.2%	67.3%	
	자율고	빈도(명)	113	313	426	
		비율(%)	6.1%	4.6%	4.9%	
	과학고·외고 등	빈도(명)	130	328	458	
		비율(%)	7.0%	4.8%	5.3%	
	예체고	빈도(명)	111	402	513	
		비율(%)	5.9%	5.9%	5.9%	
	마이스터고	빈도(명)	35	156	191	
		비율(%)	1.9%	2.3%	2.2%	
	특성화고	빈도(명)	227	791	1,018	
		비율(%)	12.2%	11.6%	11.8%	
	기타	빈도(명)	52	169	221	
		비율(%)	2.8%	2.5%	2.6%	
	전체	빈도(명)	2,046	7,339	9,385	
		비율(%)	100.0%	100.0%	100.0%	

* p<0.05, ** p<0.01, *** p<0.001

나. 진로개발역량 수준 차이

중학생의 자유학기 경험 여부에 따른 진로개발역량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자유학기를 경험한 학생이 미경험 학생에 비해 진로개발역량 전체 수준을 비롯하여 네 가지 진로개발역량 모두에 있어서 더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점수의 평균차이는 0.1점 미만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t 검정량이나 평균차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직업이해 영역, 진로설계와 준비 영역, 자기이해와 사회성 영역 등의 순으로 자유학기 경험 여부에 따른 진로개발역량 평균 점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표 9> 자유학기 경험 여부에 따른 진로개발역량 수준의 차이

진로개발역량	자유학기 경험여부	n	Mean	SD	평균차 이 (a-b)	차이 분석(t)
자기이해와 사회성	미경험(a)	2,046	4.05	0.690	-0.05	t = -3.033**
	경험(b)	7,340	4.10	0.676		
직업이해	미경험(a)	2,046	3.73	0.749	-0.08	t = -4.239***
	경험(b)	7,340	3.81	0.765		
진로탐색	미경험(a)	2,046	3.90	0.738	-0.04	t = -2.196*
	경험(b)	7,340	3.95	0.750		
진로설계와 준비	미경험(a)	2,046	3.72	0.806	-0.06	t = -3.141**
	경험(b)	7,340	3.78	0.815		
전체	미경험(a)	2,046	3.87	0.639	-0.06	t = -3.615***
	경험(b)	7,340	3.92	0.652		

* p<0.05, ** p<0.01, *** p<0.001

3. 자유학기 참여가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

모형 1에서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대하여 대도시 학교 학생이 높고 중소도시 학생은 낮으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 자유학기 경험 여부를 신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자유학기 경험이 진로개발역량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 진로교육 활동 참여 여부와 만족도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 3에서는 자유학기 경험 여부 자체의 유의미성은 나타나지 않았고, 학교 진로교육 활동 가운데 교과연계 진로교육,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동아리 참여가 진로개발역량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가 진로개발역량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자유학기 경험 자체 보다 학교의 자유학기 운영 및 학생의 자유학기 경험을 통해 나타나는 학교 진로활동 참여의 증가와 진로교육 및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향상으로 인하여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0>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자유학기 경험의 영향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β	t	β	t	
종속변수	진로개발역량 전체 평균						
(상수)	3.919	149.593** *	3.867	133.975	2.507	58.255	
인구통계 변수 (통제변수)	학교설립유형(국공립=1) ^a	-.015	-1.465	-.018	-1.728	-.019	-1.999*
	소재지더미1(대도시=1) ^a	.032	3.111**	.037	3.507***	.027	2.898**
	소재지더미2(중소도시=1) ^a	-.026	-2.473*	-.029	-2.789**	-.003	-.340
	학교 규모	-.010	-.968	-.010	-.944	-.013	-1.307
	학생 성별 ^a	.044	4.236***	.045	4.358***	.009	.931
자유학기 경험 여부 ^a			.045	4.289***	.014	1.495	
학교 진로활동 참여 및 만족도	'진로와 직업' 수업 참여 ^a				.007	.722	
	교과연계 진로교육 참여 ^a				.030	2.868**	
	진로심리검사 참여 ^a				.042	4.024***	
	진로체험 참여 ^a				.003	.247	
	진로상담 참여 ^a				.020	2.004*	
	진로동아리 참여 ^a				.029	2.902**	
	진로교육 만족도				.267	22.634** *	
	학교생활 만족도				.192	16.446** *	
설명력(adj. R ²)	0.003		0.005		0.191		
설명력 변화량(Δ adj. R ²)	0.003		0.002		0.186		
F	6.971***		8.886***		159.097***		

* p<0.05, ** p<0.01, *** p<0.001

a. 기준집단은 각각 사립, 중소도시·읍면지역, 대도시·읍면지역, 여학생, 자유학기 미경험, 각 진로활동 미참여

IV. 결론

이 연구에서는 2017년 6월 기준으로 조사한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17)’ 데이터 가운데 중학교 3학년 학생 9,385명의 응답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의 자유학기 경험 여부에 따른 학교 진로교육 활동 참여 여부 및 진로개발역량 수준의 차이 등을 분석하고, 학생 진로개발역량 수준에 대한 자유학기 경험 여부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첫째, 자유학기를 경험한 중학교(3학년) 학생들은 미참여 학생들에 비하여 학교 진로교육 활동 참여 및 진로체험 유형별 참여율이 더 높고,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 및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다. 이는 진로체험, 진로동아리, 교과연계 진로교육 등 학교 진로교육 활동 유형 모두에 있어서 자유학기 경험 학생이 미경험 학생보다 더 많은 참여율을 보였고, 진로체험 유형 모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자유학기로 인하여 학교를 통한 각종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로 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수혜 현황도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학교 진로교육의 활성화는 진로교육 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 뿐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참고로 살펴본 자유학기 경험 여부에 따른 부모와의 진로 관련 대화 빈도에 대한 차이 분석 결과에 있어서도 자유학기를 경험한 학생이 미경험 학생에 비해 학부모들과 흥미 및 적성 관련 대화와 학교·학과 선택 관련 대화를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유학기제가 학생 진로에 대한 관심 부모의 관심과 부모와 학생 간의 진로 관련 소통을 증진할 가능성이 있음을 증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자유학기 경험 여부가 중학생의 진로계획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희망직업에 대한 체험 여부와 진학희망 고등학교 유형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자유학기 경험 학생이 미경험 학생에 비해 진로개발역량(자기이해와 사회성, 직업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와 준비) 수준이 더 높았다. 자유학기를 경험한 중학생이 미경험 학생에 비해 희망직업 있는 비율이 높고, 졸업 후 진로계획에 대한 미결정 비율이 낮은 모습을 보였지만,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유학기를 경험한 학생은 미경험 학생에 비해 희망직업에 대한 체험을 한 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진학희망 고등학교 유형에 대한 비율 차이가 일부 발생하였다. 특히, 학생 측면의 진로교육 성과로 볼 수 있는 변수이면서 학생의 진로에 대한 준비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 가운데 ‘진로개발역량’ 수준은 자유학기를 경험한 학생이 미경험 학생에 비해 자기이해와 사회성, 직업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와 준비 영

역에 대한 수준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자유학기 참여가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및 진로준비도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유학기 참여로 인해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인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셋째, 중학생의 자유학기 참여는 학교의 진로교육 운영 및 학생의 진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그 만족도를 높임으로서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학생의 일반적인 인구통계 변수(학교 설립유형, 학교 소재지, 학교 규모, 학생 성별)를 통제하고 나서도 자유학기 경험이 진로개발역량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학생의 진로교육 활동 참여 및 만족도 변수들을 투입한 모형에서는 자유학기 경험 자체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볼 때, 중학생의 자유학기 경험 자체보다는 중학교 자유학기 도입으로 인하여 학교 진로교육이 활성화되고 이로 인하여 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체험 경험이 확대되고 진로교육 및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학생 측면에서의 진로교육 성과로서 진로개발역량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학교 진로교육 및 학생 진로개발 측면에서 자유학기제를 실증 분석한 결과 자유학기를 통해 학생을 위한 다양한 진로탐색 및 체험의 기회들이 확대되고 학생의 진로교육 만족도를 높이면서 학생의 진로준비도와 진로개발역량을 증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유학기제 자체의 효과라기보다는 자유학기로 인하여 학교 전반에서 진로교육이 활성화 된 것 때문이거나, 또는 자유학기제 자체가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제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및 학생의 진로개발 증진을 위하여 다음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최근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 등 여러 학기로 확산되어가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학교 진로교육 및 학생 진로개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유학기 제도 전반과 진로교육 활성화 정책(예,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등)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중학교 자유학기 시기에 진로탐색 및 진로개발이 보다 잘 이루어지기 위한 초등교육 및 중학교 초기 단계의 진로교육 방향과 세부 전략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나아가 자유학기 이후 단계의 정책 설계가 유기적으로 병행될 필요가 있다. 모쪼록 자유학기제를 통하여 학교 전반에서 학생의 진로개발이 증진될 수 있는 학교 환경이 되고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져 학생이 저마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권일남(2015). 자유학기제 청소년 진로체험이 진로탐색과 진로직업역량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3(1), 17-26.
- 김해인, 최인지, 신형진(2016). 자유학기제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9(2), 45-64.
- 박현진, 백성혜(2015).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진로체험활동이 학생들의 진로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과학교육논문집, 21(1), 11-31.
- 어윤경(2015). 진로체험 중심 자유학기제의 진로성숙도 향상 효과. 교육연구, 30(1), 27-49.
- 이지연(2013). 「進路」 중심 자유학기제 도입의 타당성과 향후 과제. 진로교육연구, 26(3), 1-22.
- 장현진(2018). 학교 진로교육 활동 참여와 만족도가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학습 동기 및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31(1), 21-42.
- 장현진, 민숙원, 김민경, 류지영, 김재희(2017).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17).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현진, 이지연, 윤수린, 이운진(2014).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성공 요인 및 지원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주휘정(2017). 자유학기제 진로체험과 학생 발달 변화 분석(이슈페이퍼 2017-0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주휘정, 김영식, 양정승(2017).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의 효과 분석과 발전 방안.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 현은령, 박영숙(2017). 자유학기제 예술형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3(3), 767-775.